7월 4일(월) / 민25-27

▶**내용요약**: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은 싯딤에 머무는 동안 모압 여자들과 우상숭배와 함께 음행을 저지른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이만사천명이 죽게 된다. 26장은 2차 인구조사가 실시되어 20세 이상 인구수가 기록된다. 이때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모든 자들(여호수아와 갈렙 제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다. 27장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속한 기업을 청구해서 얻게 된다. 또한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다.

▶**질문**: 모압 여자들과 음행으로 염병이 돌 때 음행하는 두 사람을 죽임으로 염병을 그치게 했던 아론의 손자는 누구인가?(25장)

▶**생각하기**: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차 인구조사는 광야를 행군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다. 두 차례의 인구조사 과정에서 기억해야하는 것은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자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하고 공정함을 깨닫게 된다.

7월 5일(화) / 민28-30

▶**내용요약**: 28장은 각 시기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에 대한 규례가 기록된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제사, 월삭 제사, 유월절 제사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29장은 7월에 있는 세절기인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온다. 30장은 서원에 대한 규례로 특히 여자의 서원은 자신의 아버지나 남편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 )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28장)

▶**생각하기**: 30장 서원에 대한 규례에서 특이한 점은 여성에 대한 내용이다. 미성년인 여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자기가 한 서원임에도 제약을 받는다. 이에 대해 남녀간 불평등의 문제로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 이 문제는 남자를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셔서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유지하고 당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뜻이 담겨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7월 6일(수) / 민31-33

▶**내용요약**: 3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둔다. 하지만 군대의 지휘관들이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둔 것이 문제가 되어 책망을 받고 정결의식을 행한다. 32장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도록 해달라는 청원과 이에 대한 조건부 허락이 이어진다. 33장은 애굽에서 요단까지 지나온 이스라엘의 광야생활 여정이 기록된다. 이어 가나안 땅을 제비뽑아 종족별로 기업을 나눌 것을 말씀하신다.

▶**질문**: 모세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33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생활에 대한 여정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기억하게 된다. 물론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광야생활 40년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셨기에 가나안 정복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임마누엘의 은혜!!!**

7월 7일(목) / 민34-36

▶**내용요약**: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얻을 가나안 땅의 경계를 각 지파대로 정한다.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살게 되고 나머지 지파는 가나안에서 살게 된다. 35장은 레위인이 얻을 성읍들과 도피성을 지정한다. 또한 살인에 대한 판단 율례가 기록된다. 36장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으면서 생긴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질문**: 가나안 땅을 각 지파의 기업으로 나누기 위해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34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가나안땅의 경계를 각 지파별로 정해주시며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분배받은 땅들은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인생과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의 분량이 작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 거룩한 일군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과 터전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7월 8일(금) / 신4-6

▶**내용요약**: 신명기 4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법도를 철저히 지키며 살 것을 권면한다. 5장은 십계명을 기록한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기초이며 율법의 핵심이 된다. 6장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강조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 )이니라 할지니라"(6장)

▶**생각하기**: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땅에 들어가서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종 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더욱 잘 섬길 것(6:10-12)을 권면한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육체적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될 때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을 경계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만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자!

7월 9일(토) / 신7-9

▶**내용요약**: 7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며 율법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며 가나안 거민들과는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말씀한다. 8장은 40년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나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권면한다. 9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생활 중에 범한 죄들을 상기시키며 교만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

▶**질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먹인 음식은 무엇인가?(8장)

▶**생각하기**: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여 범죄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모세는 이스라엘의 과거 잘못과 죄들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는 현실 인식이다. 우리 역시 조금 잘되는 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비하도록 하자.

7월 10일(일) / 신10-12

▶**내용요약**: 10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다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며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게 하셨음을 상기시킨다.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낸다. 11장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는데 홍해를 건넌 일과 광야생활의 여러 기적들을 언급한다. 이어 순종하면 축복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주어질 것을 확인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길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12장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에 대해 가르치는데, 우상이 있다면 파괴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만 제물을 드려야 함을 강조한다. 이어 피를 먹지 말 것과 거룩한 식사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 ) 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11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그리심 산과 에발산을 축복과 저주의 장소로 지정하시면서 결국 그 모든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있음을 말씀하신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모두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런데 그 복된 삶은 어떤 운명이나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음을 본문은 알려준다.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분을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